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2021년 문화시설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2021. 12.

서대문구의회
문화시설연구회

목 차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문화시설연구회 소개	1
2. 2021년 연구활동개요	4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5
II. 연구활동별 결과보고	8
1. 연구용역 추진	8
2. 현장방문	14
3. 전문가특강	19
4. 월례회의	21
III. 활동후기	24
IV. 언론보도	46

I. 연구회 소개 및 활동개요	1
1. 문화시설연구회 소개	1
2. 2021년 연구활동개요	4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5

I -1. 문화시설연구회 소개

☐ 단 체 명 : 문화시설연구회

☐ 소속의원 : 이동화(대표), 김해숙(간사), 최원석, 유경선, 김양희 의원

☐ 관련근거 :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 연구활동계획

단 체 명		문화시설연구회	
연구내용	주제	문화시설의 주민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개선 연구	
	목적	문화시설의 주민참여 내실화	
연구활동기간		2021년 02월 15일 ~ 2022년 06월 30일	
연구 활동비 책정액 (2021년)	총 액	금삼백이십만원(금3,200,000원)	
	산출내역	-행사비(전문가 강연 및 간담회) : 1,000천원 -문화시설조성 우수사례 견학비용 : 1,000천원 -도서 등 물품구입비 : 400천원 -연구결과 자료집 제작비 : 500천원 -회의개최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 300천원	

☐ 설립목적

- 서대문구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하에 주요 문화시설이 건립되고 재탄생되고 있음. 이렇듯 도시재생 사업과 각종 도시문화 시설들의 건립 및 운영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되어 조성되는지 살펴보고 그 실태를 반영하여 행정절차 및 조례개선 등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하기 위함.
- 또한 문화시설 건축 및 운영에 대한 공과를 살펴보고 주민참여형 문화시설조성을

제언하기 위해 조례입법과 정책개발 활동, 의정활동을 통해 서대문구 지역성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주제

- 각종 문화 시설(신촌 앵커시설,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충정APT 중정 복원, 독립문형무소 근현대문화유산 등)에 대한 주민참여형 조성에 대한 연구로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문화시설조성을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한다.

□ 연구목적

- 문화시설조성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내실화 및 주민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문화시설 조성에 대한 의결 권한 구체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함

□ 연간 연구계획

- 서대문구를 비롯한 국내외 문화시설 조성에서 주민참여 여부와 제시된 현황을 확인하여 그 공과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문화시설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문화시설 관련 다양한 자료 연구와 담당자 심층면접 현지조사 등을 병행하고 문화시설분야 조성 및 참여한 관료 및 전문가 강연 및 토론,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 문화시설조성에 발전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21년 세부 활동계획

○ 주요내용

- 서대문구의 문화시설 조성 현황과 관련정책을 검토하면서, 관련분야 현장탐방 및 간담회진행
- 문화시설 조성에서 있어서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한계 진단
- 외국의 문화시설 조성시 주민참여 권한 및 절차에 대한 검토
- 지방의회 문화시설 상정 안건 등 사례분석 및 운영 개선방안 검토
- 주민열람, 공람 등 현행 법정 주민참여 절차의 개선 방안 마련
-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의견청취, 청원, 동의 등)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의견청취, 청원, 동의 등)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월간 계획

3~4월	주민참여 문화시설조성 연구회 운영 사전준비
5월	월례회의, 전문가 초청강연, 간담회
6월	월례회의, 우수사례 견학, 간담회
7월	월례회의, 토론회, 간담회
9월	월례회의, 전문가 초청강연, 간담회
10월	월례회의, 우수사례 견학, 간담회
11월	월례회의, 토론회, 간담회
12월	월례회의, 2021년 연구결과보고회

I -2. 2021년 연구활동개요

월	활동내역
3월	○ 3. 22.(월) 월례회의
4월	○ 4. 8.(목) 월례회의 ○ 4. 16.(금) 신촌 문화시설 현장방문
5월	○ 5. 20.(목) 전문가특강
6월	○ 6. 17.(목) 연구용역 추진 관련 연구원과의 간담회 ○ 6. 22.(화) 월례회의
7월	○ 7. 2.(금) 호박골 마을공방 현장체험 ○ 7. 8.(목) 연구용역 착수보고 준비 관련 연구원과의 간담회 ○ 7. 9.(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8월	○ 8. 26.(목) 월례회의
9월	○ 9. 6.(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9. 6.(월) 월례회의
11월	○ 11.15.(월) 월례회의 ○ 11.19.(금) 연구용역 최종보고 준비 관련 연구원과의 간담회 ○ 11.25.(목)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11.26.(금) 연구용역 결과 정책활용 방안 관련 간담회
12월	○ 12.17.(금)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I -3. 연구활동비 지출현황

☐ 2021년 연구활동비 책정금액 : 금3,200,000원

☐ 지출금액 : 금2,223,000원(집행률 69%)

☐ 지출내역

연번	사용일	적 요	사용처	지출금액	지출구분
1	4/16	신촌지역 문화시설 현장견학 관련 간담회비	동해관	120,000	견학비
2	5/20	문화시설 전문가특강 관련 관계자 간담회비	선수사	110,000	간담회비
3	5/20	문화시설 전문가특강 강사료	주대관강사	360,000	행사비
4	6/17	연구회 용역추진관련 간담회비	토담집	116,000	업무추진비
5	7/2	호박골 마을공방 현장체험비	호박골마을공방	127,000	견학비
6	7/2	호박골 마을공방 현장견학 관련 간담회비	인왕골	120,000	견학비
7	7/8	연구용역 착수보고 준비관련 간담회비	인왕골	76,000	간담회비
8	11/15	연구활동보고서 작성관련 간담회비	선수사	240,000	업무추진비
9	11/19	연구용역 최종보고 준비관련 간담회비	선수사	210,000	간담회비
10	11/26	연구용역보고서 정책활용방안 관련 간담회비	연희화로	260,000	간담회비
11	12/15	현장방문 현수막제작비	북청사	44,000	물품구입비
12	12/17	연구활동보고서 제작비	북청사	440,000	자료집제작
합 계				2,223,000	

Ⅱ. 연구활동별 보고	8
1. 연구용역 추진	8
2. 현장방문	14
3. 전문가특강	19
4. 월례회의	21

Ⅱ-1. 연구용역 추진

□ 의원정책개발비 예산편성 개요

- 2019. 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항목 신설
- 편성목적 :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 지원대상 :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 연구용역 추진개요

구 분	연구용역
용역건명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서대문구의회 역할 강화방안 연구용역
계약업체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계약금액	18,900천원
계약기간	2021. 6. 21. ~ 11. 22
과업목적	◦ 서대문구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참여 실태 분석, 해결방안 모색 ◦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서대문구의회 역할 강화방안 제시
주요 과업내용	◦ 서대문구 관내 문화시설 주민참여 실태 분석 ◦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인식도 조사 ◦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사례 분석 ◦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서대문구 의회 역할 강화방안 제안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서대문구 의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용역

□ **계약기간** : 2021. 6. 21. ~ 11. 22.

□ **계약업체** :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소(관악구 남부순환로 1796, 대표: 장현우)

□ **과업목적** : 서대문구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조성과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서대문구의회 역할강화방안 제시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파랑고래’와 ‘신촌문화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관내 문화시설
- 내용적 범위
 - 서대문구 관내 문화시설 운영 현황
 - ‘파랑고래’와 ‘신촌문화발전소’ 시설의 주민참여 실태 분석
 -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대안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구의회 역할제시

□ 과업의 대상

- ‘파랑고래’와 ‘신촌문화발전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관내 전체 문화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과업의 내용

- 서대문구 관내 문화시설 현황 : 일반현황, 이용실태 등
- 서대문구 관내 주요 문화시설 주민참여 실태 분석 : 파랑고래, 신촌문화발전소
-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인식도 조사 : 문화시설 이용자, 관계공무원, 관리운영 주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사례 분석 :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사례
-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서대문구 의회 역할 강화방안
 - 법·제도적 측면: 조례 제·개정안 등 제안
 - 관리·운영 측면: 효율화 또는 개선방안 등 제안
 - 수요자 측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제안

□ 과업수행과정 : 착수보고회

○ 일 시 : 2021. 7. 9.(금) 16:00~17: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2층)

○ 주요내용

-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시민들의 주요 이용 시설물 중 하나인 문화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정에 시민참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의회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을 제시 함으로써 그 지속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인식도 조사 및 결과분석 : 7월 중으로 설문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작성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사례들을 문헌조사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민참여 관련 조례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활용방안 : 서대문구 관내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 과정에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해외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조례 제개정안 제시함으로써 입법활동 자료로 활용, 각종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용역관련 의원제언

- [이동화 의원]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연구하겠다. 신촌 파랑고래와 문화발전소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러한 원인의 파악에도 주력하여, 지역 주민이 주인이므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한 문화시설들도 추후 참고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
- [김해숙 의원] 비용 대비 효율성을 지표로 도출한다면, 한눈에 보기 쉽고 이해하기 좋을 것 같다. 연구에 참고하길 바란다.

- [유경선 의원] 관내 문화시설이 많은데, 신촌지역의 시설 2곳으로 한정하여 연구하는 것은 연구범위가 너무 협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포괄적인 시설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해외선진사례 연구시 미국보다는 유럽쪽을 참고하면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우리 문화시설에 접목하는 데에 더 좋을 것 같다.
- [최원석 의원] 이번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연구보다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설문조사 대상이 200명 정도인데, 기한 내에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해외사례도 좋지만, 전주 한옥마을처럼 국내의 좋은 사례도 많으니 참고하길 바라고, 서대문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 개최사진



□ 과업수행과정 : 중간보고회

- 일 시 : 2021. 9. 6.(월) 13:00~14: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2층)
- 주요내용
 - 서대문구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의 대상인 신촌 파랑고래와 문화발전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 인식도 조사 설계 : 인지도 조사와 시민참여에 관한 조사로 구분하여, 공무원과 구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용역관련 의원제언

- [김양희 의원] 도서관, 박물관 등 각 문화시설을 자치구별로 조사하여 우리구의 순위를 매겼는데, 이러한 순위와 이용현황상의 문제점이나 고려할 점이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연구이후가 중요한데, 해외사례 등도 분석하여 명확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 [이동화 의원] 이용현황 뿐 아니라 시설별 예산현황까지 같이 포함하면 연구가 더 충실해질 것 같다. 신촌 파랑고래와 문화발전소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면서도 별도의 용도와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두 문화시설이 각각의 개성을 살린 실용적인 공간활용이 필요할 것 같다.
- [김해숙 의원]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보다는 실제 문화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필요할 것 같다. 설문지조사 뿐 아니라 인터뷰 등을 통한 심층적인 조사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열심히 하길 바란다.

○ 개최사진



□ 과업수행과정 : 최종보고회

○ 일 시 : 2021. 11. 25.(목) 10:00~11: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2층)

○ 주요내용

-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인식도 조사결과
-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사례 분석
-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서대문구의회 역할 강화방안

○ 용역관련 의원제언

- [최원석 의원] 타구사례를 예시로 인센티브 부여 및 저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타구와 우리구의 분위기가 비슷한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지, 우리구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이동화 의원] 설문결과 이용도가 낮은 시설들에 대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많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향후계획 : 12월 말에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용역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원과의 토론 시간 마련

○ 개최사진



Ⅱ-2. 현장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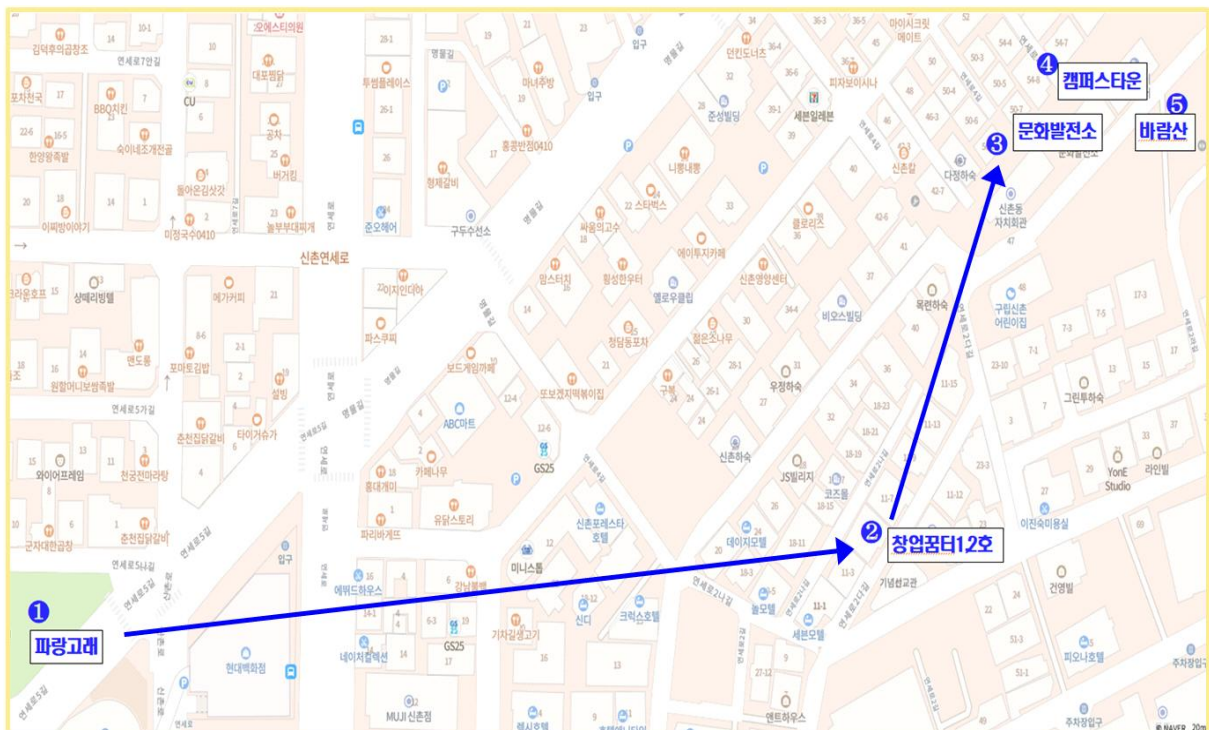
신촌 문화시설 현장방문

☐ 일 시 : 2021. 4. 16.(금) 15:00~18:00

☐ 방문인원 : 문화시설연구회 의원

☐ 방문장소

시설명	위 치	사업목적	관리부서
신촌 파랑고래	연세로5나길 19	청년문화예술활동 거점공간	도시재생과
청년창업꿈터(1,2호점)	연세로2나길 19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주거공간	서울시투자창업과
신촌문화발전소	연세로2나길 57	청년문화활동을 위한 복합시설	문화체육과
캠퍼스타운(에스큐브)	연세로2나길61	예비 및 초기창업가 창업지원	사회적경제과
바람산일대	창천동 4-55	이동 편의시설 및 문화광장조성	푸른도시과



☐ 방문목적 : 우리구 청년 문화의 중심지역인 신촌일대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문화시설 이용현황 및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편의시설 점검

□ 주요내용

○ 파랑고래

- 시설개요

구 분		명칭 및 용도	면적(m ²)	장비 및 시설
지상	3층	사무실, 다목적홀	251.88	음향, 영상장비, 테이블, 의자, 사무기기 등
	2층	커뮤니티 라운지, 인포데스크	208.91	회의용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
	1층	개방화장실, 시설관리실 야외공연장	270.21	사무기기, 조명 등
지하	1층	연습실	77.21	음향장비, 테이블, 의자 등
합계			808.21	

- 신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들의 창의적인 문화·예술 실험 공간
- 인접한 연세로 스타광장과 인근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각종 문화행사 기획
-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기획으로 버스킹 등 청년문화 창작활동 촉진
- 자치구·인근대학·민간기관 등 지역자원 활용, 창업기반 구축



신촌파랑고래

○ 신촌문화발전소

- 시설현황

층	별	주 용도	면적(m ²)		비 고
			주용도	전체	
지상	4층	카페 '바람'		21.12	
	3층		63.78	85.60	
	2층	스튜디오 '창'	62.06	119.35	창작기획실
	1층	로비/갤러리	45.79	100.73	
지하	1층	사 무 실	23.38	93.08	
	2층	공 연 장	78.88	167.54	
합 계			273.89	566.30	

-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신촌문화발전소 브랜드 정체성 확립
- 다양한 관점과 발표 방식을 소개하고 다각화 된 예술 창작과정 공유
- 연간 280여회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80%이상의 공간 가동률 달성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향수 충족



신촌문화발전소

○ 청년창업꿈터

- 호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청년창업가들에게 창업활동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창업교육
- 대기업협업, 기업별 특화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스케일업 강화 지원
- 해외 판로개척, 해외 투자자 연계 등을 통한 글로벌 우수기업 창출

○ 캠퍼스타운(에스큐브)

- 창업교육, 기술멘터링, 투자연계 등 창업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및 연어형 창업가를 위한 창업거점 공간 조성
- 200개 스타트업, 5만명 유동인구 확보,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창업육성, 지역상생, 투자특화의 3개 분야 12개 프로그램 29개 프로젝트 운영
- 인근대학 연계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신·상·홍·합 밸리 및 서북3구의 서북권 캠퍼스타운 거점 역할 수행

○ 바람산일대 문화광장

- 창천근린공원 이동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완료 2019.10월)
- 바람산 어린이공원 및 창천근린공원 문화광장 조성
- 창천 몽마르뜨 언덕의 청년화가들 공모사업 추진



캠퍼스타운(에스큐브)



청년창업꿈터

바람산 공원

호박골 마을공방 현장제험

□ 일 시 : 2021. 4. 16.(금) 15:00~18:00

□ 장 소 : 홍은동 호박골 마을공방 일대

□ 방문의원 : 문화시설연구회원

□ 기관개요 : 서대문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목공방으로 목공기술을 배우는 곳이 아닌 목공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목공예 재능 공유형 커뮤니티 공방

□ 시설현황

- 교육실 : 목공수업 및 목공예 작업공간. 목공 수업에서는 참가자가 선택한 아이템을 만드는 법, 만든 이후 마감을 하는 법 등 제작부터 마감까지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
- 작업실 : 작업실에는 밴드 쏘, 스카시 쏘, 드릴 프레스, 클램프, 각도 절단기 등의 공구류가 비치되어 목공예 작업시 사용법을 안내받아 이용
- 사랑방 :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 주요내용

- 목공예체험 마을공방 시설운영현황 견학
- 목공예 현장 체험(빵도마만들기)

□ 방문사진



II-3. 전문가 특강

참여형 문화적 재생

☐ 일 시 : 2021. 5. 20.(목) 14:00~16: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2층)

☐ 강의주제 : 참여형 문화적 재생의 이해

☐ 강 사 : 주대관 문화도시연구소 대표

경력사항

- (사) 문화도시연구소 대표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엑토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서대문구 총괄계획가 / 도시재생위원장

☐ 강의내용

○ 서대문 문화시설과 문화재생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

- 도시재생 : 쇠퇴한 산업시대의 도심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리뉴얼하여 재활성화하는 것
- 문화적재생 : 문화 및 예술 관련 자원과 활동을 통하여 쇠퇴한 지역과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
- 한국도시재생의 특징 : 충분히 쇠퇴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기에 도시기능 조정이 곤란, 콘텐츠와 문화 환경이 전문한 곳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문화관광형 계획 어느 곳이나 문화입히기 사업, 잉여상업시설의 조정없이 재상업화

○ 문화와 도시

- 도시성장의 수단으로서 등장한 문화산업으로 인하여 문화의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
- 문화도시의 조건 : 역사성과 전통성, 공동체성, 아름다운 미학, 창의성
- 문화예술과 지식산업이 지닌 창조적 힘을 활용하여 사회 잠재력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예술환경의 변화 : 생산과 소비자 -> 문화참여자

○ 서대문구 문화시설 발전을 위한 논의

- 도시재생이 문화적 재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이때의 도시는 지역을 의미하며 한국에서와 같이 소규모 도시재생과는 달리 문화가 도시(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함

○ 문화적 재생을 위한 대안

- 도시재생에서 지역재생으로 변환하여 공동체 활성화
- 사회적 재생의 머운의 형식적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의 부작용 탈피

□ 강의사진



II -4. 월례회의

☐ 월례회의 개최실적 : 총 6회

☐ 주요 논의내용

일시	논의내용
3.22.(월) 10:30	- 연구회의 취지 및 연구활동비 공유(연구활동비 3,200천원 책정) - 연구회 명칭변경: 주민참여문화시설연구회 -> 문화시설연구회 - 연구회 현장탐방 방향논의 : 서대문관내 문화시설 견학 - 연구용역 관련 주제 논의 : 지역주민의 시설활용도와 문제점 논의 후 가장 적절한 용역주제 선정
4.8.(목) 11:00	- 연구용역 준비논의 : ‘신촌’을 중심으로 기존 시설들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논의 - 현장견학 : 신촌 일대 시설탐방(파랑고래 등 5곳) - 전문가 강연개최 논의 : 주민참여도 향상을 위한 서대문 문화시설의 발전방향 등
6.22.(화) 13:00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일정 논의 · 일시: 2021.7.6.(화) · 장소: 의정연구실 · 내용: 연구용역 추진의 방향과 중점 연구사항 논의 - 문화시설 현장견학 일정 및 장소 논의 · 일시: 2021.7.2.(금) · 장소: 호박골 마을공방 · 목적: 마을 커뮤니티 공간 시설 견학 및 공방체험
8.26.(목) 10:00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일정 논의 · 일시: 2021.9.6.(월) · 장소: 의정연구실 · 내용: 연구용역 책임연구원과의 연구내용 검토
9.6.(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공유 · 연구방향성 검토, 설문조사 홍보방안 논의

일시	논의내용
11.15.(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일정 논의 · 일시: 2021.11.25.(목) 10시 예정 -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방안 논의 · 작성방향: 1년간의 활동내역,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개인별 활동소감 수록, 언론보도내역 첨부

☐ 회의사진



Ⅲ. 활동후기	24
---------------	----

주민이 주인. 모두 함께 활용하는 문화시설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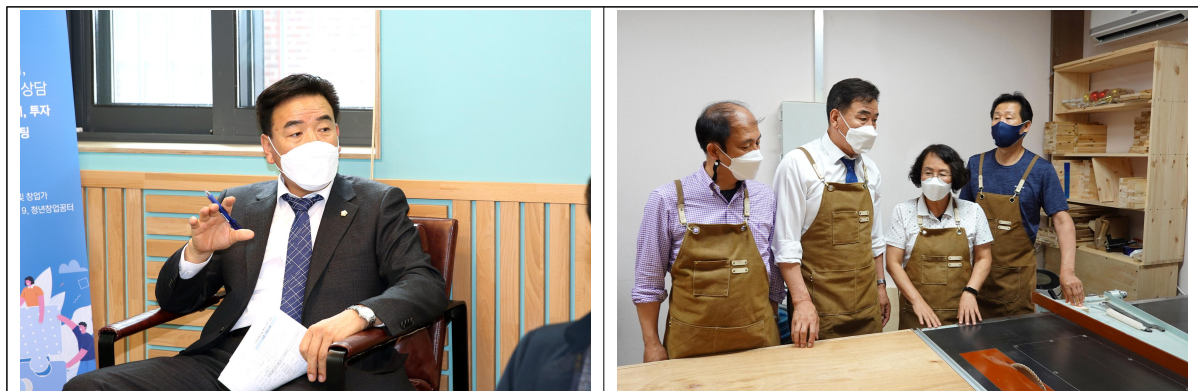
이동화 대표의원

2015년 신촌지역이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대상지로 신촌동 지역에 4년간 10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었다.

처음 대상으로 선정되자, 주민들은 뭔가 획기적으로 지역을 위해 아주 좋은 발전적인 사업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또 성공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였다. 당시 신촌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나도, 그 당시 신촌지역 발전의 기대를 가지고 신촌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였다.

신촌동 주민협의체는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여 지역현안을 찾고, 주민, 전문가, 행정의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신촌지역의 환경을 주민 바꾸고 스스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나뿐 아니라, 당시 많은 주민들이 지역 발전에 동참하는 기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화축제도 하고 도시재생워크숍도 하면서, 도시재생지역활동가 양성프로젝트까지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협의체에서 회의는 수도 없이 많이 열렸으나, 결정되는 사안은 더디고, 더욱이 권한도 없는 회의로 진행되면서, 당장 생계가 급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져나가고,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지 않게, 주민들은 점점 빠지고 전문가와 행정만이 남는 모습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은 그래도 착착 진행되어 신촌지역에 청년창업꿈터와 신촌문화발전소 신촌파랑고래 등의 문화공간들이 생겼다.

새롭게 생긴 그 공간들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민들도 잘 활용해서 문화생활 증진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하지만 문화공간은 만들어졌으나 행정적으로만 운영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지역에 만들어진 문화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내가 문화시설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시작한 초심이다.

서대문구에 많지 않은 문화시설이 있다.

주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갈급한 수요에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문화시설을 과연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고, 동료 연구회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보고,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들으면서 더 점검하고, 또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구의회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할까 하는 주제로 연구용역도 의뢰하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촌의 도시재생은 청년들을 위한 투자로 집중되었다.

이에 신촌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촌도시재생의 젊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컨셉에 대해 즉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들로 인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젊은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지역의 어르신들의 희생과 양보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신촌파랑고래가 건립된 창천문화공원에는 아주 오래된 2층 건물인 창천경로당이 있었다. 도시재생에서 느닷없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며, 사전설명 중간 설명 생략하고 창천경로당을 이전시켰다. 접근성 좋은 평지에 있던 창천경로당이



줄지에 접근성 떨어지는 언덕길위의 좁은 공간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전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 주셨던 어르신에게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이전할 곳에 대한 의논도 없었다. 납득이 가게 설명하고 함께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놓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참으로 어르신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일이다. 노여움의 양금은 아직도 남아 있다. 지금도 신촌동의 커다란 민원 중에 하나가 창천경로당의 이전이다. 조금 더 평지에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어르신들의 공간을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촌동에 바람산 밑에 있던 창천데이케어센터가 있었다. 그런데 창천데이케어센터가 없어지고, 연세에스큐브로 바뀐 것도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간 창천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의 주간보호시설로 활동하면서, 4층의 강당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방하여 장구 등 국악도 배우고, 또 탁구로 체력도 단련하는 지역 문화체육공간으로 사용되었었는데, 도시재생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받아 연세에스큐브로 바뀌었다. 젊은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인큐베이팅을 하는 공간으로 바뀐 것은 좋으나, 지역주민들과는 멀어졌다.

청년들 창업지원 또 그들을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기대하는, 이상은 좋으나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양보했거나 심지어 뺏겼다고 생각하는 주민도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서대문구에 있는 문화시설이 주민참여형 문화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구의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도 다 하고 싶다. 올해 첫발자국을 댄 문화시설연구회가 어떻게 해서든 이 지역의 문화공간이 이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어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활동을 하는 서대문구의회 연구단체로 역할을 다하기를 다짐해본다.

주민참여로 잘 활용되는 문화시설 많아지길

김해숙 의원

지난 2018년 6월 나는 구의원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벌써 3년 반 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각오와 진심을 다해 열심히 하고 싶었던 초심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구의원으로 선출은 되었으나 아직 구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인 그해 6월 21일, 나는 신촌문화발전소 개관 기념식에 당선자의 신분으로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되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그림같이 예쁘게 지어진 신촌문화발전소.

당선의 설레임이 아직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참석한 첫 공식행사가 신촌문화발전소의 개관식인 것이다.

신촌문화발전소는 청년예술가들에게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에 80석 규모의 소극장이 있고, 전시가 가능한 갤러리, 회의 강좌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창과 카페 야외테라스 등등 참으로 예쁜 공간이었다. 개관식에 참석하면서 이 멋진 공간을 청년 예술가들과 또 서대문구 주민들이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소개를 듣고 이 공간을 이용하면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주민들을 상상하니 신촌문화발전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껏 높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였다.





그리고 1년 뒤 신촌에 청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문화공간인 신촌파랑고래 개관식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신촌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앵커시설로 개관하게 된 신촌파랑고래는 청년 문화예술지원과 활동가들의 교류, 지역커뮤니티 구축,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주변 지역과의 연계사업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창천문화공원에 자리잡아 개관식을 갖게 된 신촌파랑고래는 처음에 개관 전에는 청년 창업지원센터라고 부르다가, 개관식에 맞춰 고래의 입을 닮은 모양과 청년의 맑고 푸른 이미지를 합쳐 외관에 걸맞게 작명하여 신촌파랑고래라고 명명하였다.

푸른 5월에 가진 신촌파랑고래 개관식에는 신촌의 청년문화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길 바라는 기대감에 구의원들도 10명이 넘게 참석하였고,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신촌파랑고래가 신촌이 젊은 세대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기획되었지만, 그래도 이곳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기대함과 또 그 시설을 함께 참여하고 싶은 높은 주민의식도 보았다.

하지만 신촌문화발전소나 신촌파랑고래는 주된 이용층이 청년이다. 지역주민에게 열려있는 있지만 지역주민에게 완전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다. 특히 신촌파랑고래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초기부터 관리하여 개관식이 지난 뒤에도 도시재생과에서 주도적으로 문화 혹은 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 주민이 참여하기에 턱이 턱없이 높다. 청년이나 문화 프로그램이 도시재생과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도저히 모를 일이다.

신촌도시재생 사업으로 창천문화공원 내에 신촌파랑고래를 건립한 것은 연관이 있겠으나, 프로그램을 계속 도시재생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신촌문화발전소가 나의 지역구이다 보니, 가끔 들러볼 때가 있다. 3층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1층의 로비에서 열린 수준 높은 퓨전의 공연을 접한 적이 있다.

아하 ~ ~

신촌문화발전소에서는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 청년들, 그들이 고민해서 표현해내는 이런 공연도 하는구나. 그런 청년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공연장소가 있다는 것이 내심 뿌듯하였다. 함께 같이 참석했던 주민들도 공연을 즐기면 잠시 힐링하였다.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한정된 문화시설을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문화시설로 함께 사용할 수는 없을까? 그런 저런 문화시설 활용에 대한 아쉬움과 욕심이 내가 문화시설연구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는 문화시설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 도시재생 사업으로든 아니면 주민들의 욕구로 인해 건립된 문화시설이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작다. 그나마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점휴업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니 더욱 안타깝다.

며칠 전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갈급하였던 북아현문화체육회관 개관식이 열렸다.

너무 기쁜 마음에 얼른 참석하여 북아현문화체육회관의 개관을 축하했다.

북아현문화체육회관은 지난해 이미 완공은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사태로 서대문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예방접종센터로 활용되며 개관이 일년 미뤄졌다. 주민들은 지어 놓고 열리지 못하는 문화체육회관의 개관을 기다리면서 주민들의 공간에 대한 갈급함을 또한 많이 느꼈다.

새로 북아현문화체육회관이 개관은 했지만 한정된 공간에,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서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다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의 주민들의 욕구는 있으나,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다양하게 공간을 나눠 써야하는 일은 보통의 일이 넘는다. 개관 전부터 프로그램 대기자가 벌써 줄을 서있다. 안타깝다.

지역에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커져 가는데, 그 수요를 맞추는 공급은 더더기만 하다. 그렇다고 큰 비용이 드는 문화시설을 금방 만들어 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갖춰져 있는 문화시설을 조금 더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나눠 쓰는 것을 모색해본다. 주민들이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를 즐길 수 있길 바라



며, 오늘도 3년반 전에 처음 구의원이 되어 열심히 하고 싶었던 그 각오를 되새겨본다.

어느덧 약 1년 간의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의욕적으로 시작한 활동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한편으로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연구회라는 단체의 이름이 말해주듯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서대문 관내에 산재해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 가야하는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동원하여 우리는 순수문화제를 후세에게 전달하기 위해 의원들의 노력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동안의 연구활동을 정리해보며 문화시설연구회원으로, 구의원으로서, 문화도시 서대문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과 역할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파랑고래

신촌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명물거리로서, 서대문구의 새로운 예술과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이곳은, 70~80년대 통기타 문화와 추억을 상기하며 청년들만의 가치를 선도하는 장소로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방치된 공원을 새로운 장르의 공간으로 변화시키어 신세대들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함으로써 이해 충돌하는 부분의 해소가 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창업센터를 더 많이 홍보하여 모든 청년들이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성공 신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위치가 주택가 쪽에 인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방문이 어려운 점입니다.

이용자의 범위를 넓혀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4. 연세대학교 캠퍼스타운 에스큐브

연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개별사무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이용자들이 본인의 창작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공간 및 행사운영과 신제품 생산, 회의, 멘토링진행 등 한번에 모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으니, 다양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창업거점의 극대화로 입주시설 무상제공 등 벤처기업의 탄생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 바람산 일대 이동편의시설

바람산 공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개선한 곳입니다.

반대편에서는 경사가 완만하여 공원 진입이 쉬우나 인구가 많은 신촌방향에서는 경사가 급한 계단이라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보다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쪽에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금년 말 완공되면 더 많은 주민들의 공원 이용이 예상됩니다.



6. 전문가 특강

주대관 교수의 특강을 통해 문화도시의 창조성, 문화적 재생의 의미와 도시재생 등 대안 모색, 운영관리 등 문화시설 연구회가 가야할 방향을 전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에 산재한 문화재의 발굴과 현장검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본적인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탐방코스를 설계하는 등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좋을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 꼭 필요한 강의였습니다.

7. 호박골 문화공방 현장견학

홍은동에 위치한 호박골 문화공방은 목공예 재능공유형 커뮤니티입니다.

시설견학 및 목공체험으로 관내 버려진 건물이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공을 통한 정서함양과 주민들의 화합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고, 새로운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성취감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협동심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보다 더 적극적 홍보로 많은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희망해 봅니다.

서대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전문적인 역사는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관내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루어 후세에는 정확한 역사관을 심어주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산재해있는 우리 문화를 잘 계승하고 살려서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된 현재 서대문구의 문화시설도 예외 없이 주민들의 문화시설 참여 수준도가 저조하여 정작 구민의 위해 설립된 문화시설이 예산 낭비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좀 더 많은 구민들의 활용율이 높아지도록 하여 문화시설의 활용 저조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

더욱이 서대문구 관내 문화시설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 설립 및 관리·운영 과정에 주민참여 수준은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금번 저의 연구회 참여 목적은 서대문구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하고

특히,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조성과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서대문구의회 의원 역할 강화 방안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서대문구의 문화시설이 많은 관계로 우선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서대문구 관내 주요 대상의 문화시설로는 ‘파랑고래’와 ‘신촌문화발전소’로 한정하여 분석을 하고

필요시, 학계 전문가 대상의 자문회의 또는 워크숍 등 개최도 추진하여 연구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1. 신촌 파랑고래 운영 목적

- 청년들의 전문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생활문화공간으로 ‘신촌, 파랑고래’를 포지셔닝 및 브랜딩
- 현대음악, 오감워크숍, 전문영상제작 등 청년참여를 통한 차별성 있는 생활문화예술 결과물을 선보임
- 전문성을 제고한 현대예술(음악, 무용, 미술 등) 분야의 전문기술과 보다 넓은 범주의 미적체험을 참가하는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제공
- 서대문구청 부서간 협업을 기반으로 주요대학과 예술가, 지역동아리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작거버넌스 환경조성
- 아날로그와 디지털, 4차산업혁명 기술 등을 활용한 체험형 중심의 다각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제작

2.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목적

- 청년예술가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 청년예술가를 위한 문화 공간(Culture Space)
 -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향유
- 예술가 스스로 성장을 모색하는 창조 공간(Creative Space)
 - 단계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술역량 축적 지원
-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 커뮤니티 공간(Community Space)
 - 문화예술 허브센터로서 공공적 역할 강화

3. 문화시설 특화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문화예술 특화

○ 신촌 파랑고래와 신촌문화발전소는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 및 체험을 위한 목적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님

□ 청년지원 특화

○ 신촌 파랑고래와 신촌문화발전소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을 지님

- 특히, 청년들의 전문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시민 수혜형 프로그램 구성

○ 전문성을 제고한 현대예술(음악, 무용, 미술 등) 분야의 전문기술과 보다 넓은 범주의 미적체험을 참가하는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님

□ 지역 사회와의 연계

○ 지역주민, 상인, 청년들이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 제작 등 서대문구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 활동

○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예술가, 대학교, 젊은 예술인,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자 문위원회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4. 서대문구 대표 문화시설 인식 분석

□ 서대문구 대표 문화시설인 신촌 파랑고래와 신촌문화발전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인지와 이용, 그리고 만족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함



○ 신촌파랑고래는 신촌지역에 세워진 공공 문화도시재생 앵커시설로 각종 기획전시, 공연,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며, 지하층에 바닷 속 연습실이 있고 지상층에 고래마당, 파랑고래실, 웰컴라운지, 꿈 이룸홀 등이 있음

○ 신촌문화발전소는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예술인과 작가들이 모여 차세대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창작-발표의 문화플랫폼이며, 옥상테라스, 카페 바람, 스튜디오 창, 갤러리, 소극장 등이 있음

□ 연구회에서 설문을 통한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대문구의 대표 문화시설인 신촌파랑고래와 신촌문화발전소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 만족도 공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고한 가운데, 공무원 집단과 일반시민 집단 간에 인지도와 만족도는 공무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고했으나, 이용도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의 문화시설에 대해 이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체육시설과 도서관에 대한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이룸센터에 대한 만족 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서대문구의 대표 문화시설과 유형별 문화시설에 대한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홍보 강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서대문구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화시설로는 복합문화공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5.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 연구

□ 현재 서대문구 주민들의 낮은 시민참여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궁여지책(窮餘之策)의 대응방안으로서 인센티브의 체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의 사례들은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인센티브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민참여 인센티브 유형

○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서대문구 문화시설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문화시설 이용비용의 감면 및 프로그램 이용 혜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센티브로는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상품권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벤치마킹할 수 있었다.

□ 인센티브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고, 동기부여의 촉진은 환경의 변화와 사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시기별로, 사안별로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동기를 구체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3) 인센티브의 제도화

□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

○ 행정기관은 인센티브를 시민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적극적 시민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 또한 참여하는 시민은 인센티브를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닌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센티브 관련 조례에의 반영

(1)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관련 조례에 인센티브를 명시하거나,

(2) 서대문구 주민참여 전반에 관한 조례에 인센티브를 명시하거나,

(3) 시민참여 인센티브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위의 내용에서 나타난 서대문구 문화시설의 주민참여 및 이용의 개선방안과 역할 강화에 필요한 연구활동에서 나온 제언을 활용하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회는 구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및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좀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시설의 주민 참여에 필요한 방법을 연구하고 우선 주민 참여에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인 인센티브 적용을 제도화하는 조례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구민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시설 활용에 필요한 방안을 계속 개발하도록 연구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원하여 구민들의 문화시설의 높은 활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발전 서대문을 기대하며..

김양희 의원

연구회를 설립한 지 어언 10개월차가 되어가고 있군요!

신촌 문화시설 현장탐방을 시작으로 특강을 듣고 공방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난 1년을 보내왔습니다.

신촌파랑고래, 청년창업꿈터, 신촌문화발전소, 캠퍼스타운, 바람산, 호박골 문화공방 등 많은 곳을 방문하고 기관 담당자들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먼저 파랑고래는 청년들의 문화예술 거점공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파랑고래 시설을 제외한 또 다른 공동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나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주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이용시설의 신설여부와 현시설 이용에 대한 것은 주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청년창업꿈터와 캠퍼스타운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입주기업들의 시설이용에 관한 문제점과 실패와 성공사례를 듣지 못했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전·후반, 연말 등 한번쯤은 창업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촌문화발전소와 바람산 일대는 신촌의 명소임에는 틀림없으나 차량 진입과 주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촌 일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쉼터임에도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 또한 아쉽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방문하길 기대해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특히 호박골 문화공방 현장탐방이 참으로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탐방은 마을공방에서 직접 실습체험을 함은 물론이고 실습물을 본인이 오래 간직할 수 있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탐방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시설연구회가 아직 10개월 정도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회성으로 끝마무리 하는게 아니고 문제점과 보완사업을 검토하여, 보다 더 많은 시설을 시찰함으로써 연구회가 더욱 더 발전 하리라 사료됩니다.

문화시설연구회원님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함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V. 언론보도	46
----------------	----

□ 주요 보도내용

기호일보

[기호경제] 서울 서대문구의회 문화연구회, 신촌 문화시설 효율적 활용 행보 ‘눈길’ 2021.4.18.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문화시설연구회가 청년 문화의 중심 지역인 신촌일대 문화시설을 방문해 시민 서비스 향상 등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동화 의원을 비롯한 문화시설연구회 소속 의원 5명과 서대문구의회 직원 등 총 8명이 지난 16일 오후 신촌 파랑고래와 청년창업꿈터 1·2호점, 신촌문화발전소, 캠퍼스타운(에스큐브)와 바람산 일대 등 5개의 신촌지역 문화시설을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신촌파랑고래는 청년문화예술활동 거점공간으로 구청 도시재생과가 관리부서다. 청년창업꿈터는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 및 주거공간으로 서울시 투자창업과가 관리부서다. 신촌문화발전소는 청년문화활동을 위한 복합시설로 구청 문화체육과가 관리부서이며 캠퍼스타운은 예비 및 초기창업가 창업지원을 위해 설립됐으며 구청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리한다. 바람산일대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광장 조성이 사업목적이며 푸른도시과에서 관리감독한다.

문화시설연구회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이동화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해숙 의원이 간사로 활동한다. 참여의원으로 김양희 의원, 유경선 의원, 최원식 의원이며 올 2월 발족 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시설연구회는 지역내 설치된 여러 문화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대상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방안모색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 기사 바로보기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312>



서대문구의회 문화시설연구회, 문화시설 주제로 특강

2021.6.1.

문화도시 전문가에서 듣는 성공형 문화재생에 대해 공유



서대문구의회 문화시설연구회(대표의원 이동화)가 지난 20일 의정연구실에서 문화시설의 의미와 나갈 방향을 공유하는 특강을 열었다.

문화시설연구회는 관내 각종 문화·편의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새롭게 구성된 의원연구 단체다.

이동화 대표의원을 주축으로 김해숙 의원이 간사를 맡아 최원석, 유경선, 김양희 의원이 함께 활동 중이다.

특히 올해 연구단체 활동을 승인 받은 만큼, 현장을 직접 살피는 연구활동 뿐 아니라 전문가에게 듣는 다양한 특강도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그 첫 번째 특강으로 문화도시연구소 주대관 대표 초청, 「참여형 문화적 재생」을 주제로 강의를 가졌다. 강의에는 문화시설연구회 의원 뿐 아니라 박경희 의장과 김덕현 재정건설 위원장이 함께 했다.

본격적인 강의에서 주대관 대표는 「문화도시와 도시의 창조성」, 「문화적 재생의 의미와 한국의 도시재생」, 「문화도시의 대안모색과 운영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문화도시 전문가로서 서대문구 총괄계획가와 도시재생위원장을 역임했던 만큼 관내 다양한 문화시설이 가진 의미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 도시와 주민을 위한 문화재생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전략은 물론 구의회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에 문화시설연구회 의원들은 서대문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의 한계점과 도시재생에 대해 가진 문제, 지역적 고민들을 터놓고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문화시설연구회 이동화 대표의원은 『더 많은 주민들이 더 좋은 문화편의시설을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문화시설연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기사 바로보기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72033&s_where=&s_word=&page_num=1&seq=108

서대문구의회 문화시설연구회, 문화시설 주민참여 실태 분석

2021.9.10

**주민참여형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서대문구의회 역할 강화방안, 연구
용역 진행,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 시설 혜택 누릴 수 있는 방안 연구하고자**



[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문화시설연구회 대표의원은 주민 참여형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서대문구의회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시설연구회는 관내 각종 문화·편의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올해 연구단체로 등록한 바 있다. 이에 이동화 대표의원을 주축으로 김해숙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최원석, 유경선, 김양희 의원이 함께 활동 중이다.

실제 문화시설연구회는 관내 각종 주민편의 시설 현장을 직접 살피는 연구 활동 뿐 아니라 관련 특강 등을 진행,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동안 현장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 문제를 분석하던 내부적인 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함이다.

특히 서대문구 관내 문화시설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실제 주민참여 수준은 저조한 것이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관리·운영 현황을 명확히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가장 먼저 신촌의 파랑고래와 문화발전소를 우선 선정해 연구용역을 진행,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참여 실태는 물론 인식도와 국내외 사례 등 총체적 분석은 물론 문화시설 수요자 측면에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관내 문화시설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리·운영에 있어 구의회의 역할을 강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화 문화시설연구회 대표의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관내 각종 문화편의 시설이 가진 운영현황과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의회 역할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 의원들은 지난 6일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방향성을 더 명확히 하기도 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진행, 결과를 별도로 알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오경 기자 kok7201@naver.com

▶ 기사 바로보기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594>